



광남일보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판매 150만대 달성
투싼·니로 HEV 인가...라인업 확대 등 대응

7



장성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 추진된다
김현중 군수 "데이터센터 조성...동반성장 기대"

8



강진 디지털농업대학, 미래 농업 인재 육성
스마트한우·바이오 발효 등 농가 '호응'

10



전남 바둑 김현석, 대통령배 최강부 정상 등극
김해시장배 이어 올시즌 2관왕 달성...바둑계 강자

12

조간 제791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음력 7월 3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살펴보니...

광주·전남 ‘인공지능·재생에너지’ 거점 만든다

AI 집적단지·미래차·해상풍력 등 인프라 경쟁력 우수
시·도, 27일 특별자치단체 선포...공동사업 토대 마련
초광역협력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 전환점 기대

광주·전남·전북 등 서남권이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거점으로 새롭게 육성된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3축(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을 공약하면서, 권역별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내놔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와 전남은 오는 27일 특별자치단체 선포식 전포식을 열고 초광역 협력의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어서, 정부 전략과 지역 행보가 맞물리며 지역 성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 집중형에서 다핵화된 초광역 체제로 전

환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관광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권역별로 맞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권역별 육성전략을 보면 광주·전남·전북이 포함된 서남권은 AI와 모빌리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 산업이 전략 산업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 대경권(대구·경북)은 로봇·이차전지·바이오, 중부권(대전·충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기초R&D, 강원·제주권은 관광·청정에너지·바이오가 각각 지정됐다.

광주는 이미 AI 집적단지와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통해 인공지능과 미래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고 있다.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 단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농생명·식품산업에서도 전국 최대 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농식품 가공·첨단농업 기술이 더해지면서 서남권 전체가 산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정부가 서남권을 AI,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규정한 배경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단위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전략과 맞물려, 광주와 전남은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특지단) 설치 선포식을 연다.

양 시·도는 이미 공동 의제 발굴과 세부 협의를 마쳤으며,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규약 설계와 정부 협의를 거쳐 연내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지단은 영국의 '통합기관(CA)'처럼 지자체가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첨단 바이오·헬스, 에너지 전환이 초기 협력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상생발전위원회'나 '빛고를 생활권 협의회' 등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법적 구속력과 재정 뒷받침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장 14곳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20% 환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등을 비롯해 전남 무안·담양·나주·함평 등 17개 지역이 대상에 포함,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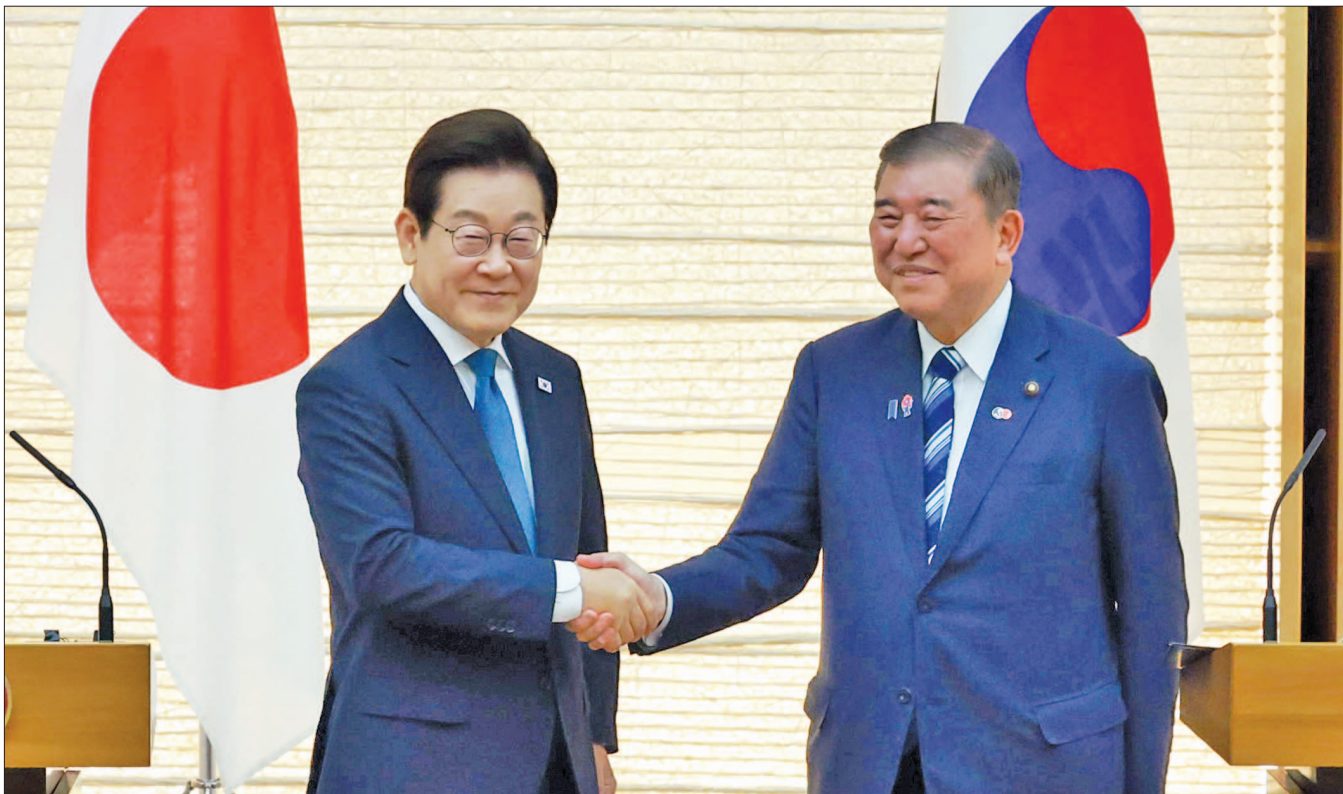
광주에서는 북구, 광산구 어룡동, 삼

도동 등 3곳, 전남에서는 무안군,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을 비롯해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염산면, 신안군 지도·임자·자은·흑산면 등 14곳으로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계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 총 20%를 환급한다.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최적 파트너’로 미래 협력 ‘교두보’

이시바 총리와 한일정상 서틀외교...25일 한미회담 준비 ‘총력’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난 23일 도쿄 정상회담은 과거사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은 이날을 계기로 재개된 한일 서틀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상생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113분에 걸친 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여기에는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로 대 표되는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속에 안보는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양측의 이

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는 두 정상의 공동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같이하는 이웃'으로 서로를 규정하고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측에 '윈윈'이라는 두 정상의 판단이 깔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 하는가 보여준다"며 "서로에 유익하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의 강화·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서틀외교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양국 모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을 벌였다는 점에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끝낸 일본과 소통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다. 이튿날에는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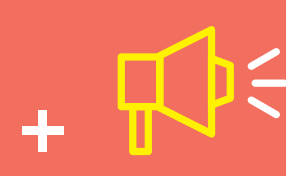
연합뉴스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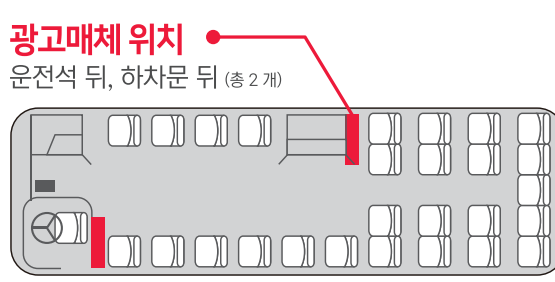
높은 주목도



저렴한 광고비

이벤트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